

B-3. 상피하결합조직을 이용한 치근면 피개술

김윤상*, 유형근, 신형식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치은퇴축은 심미적 문제, 지각 과민, 치태 침착, 염증을 동반한 경우 지속적인 치은퇴축을 포함한 치주조직의 breakdown 등의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이러한 치은 퇴축의 원인으로는 최소한의 부착치은량(협설측, 치근-치관방향), 소대 견인, 치아의 비정상적 위치등이 있으며 치은퇴축을 일으키는 촉진요소는 염증성 치태, 열상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칫솔사용법, 의원성 요인(치아삭제, 변연위치, 인상채득 등)이 있다.

Sullivan&Atkins (1968)는 치은퇴축 양상을 *sallow-narrow*, *shallow-wide*, *deep-narrow*, *deep-wide*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고, Miller(1985)는 치은퇴축 정도와 인접치간골, 치간유두의 소실 정도를 고려하여 치은피개술 후 얻어지는 피개량의 예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증례의 적절한 선택과 충분한 혈액공급, 적절한 두께의 이식편, 사강(*dead space*)이 없어야 치근피개량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성공적인 치근면 피개(Miller: 1995)는 치은변연이 CEJ에 위치하고 치은열구가 2mm이하로서 탐침시 출혈과 지각과민이 없으며 주위조직 외형과 색조의 조화 여부로 결정하게 된다. 심미와 예방적 측면에서 노출된 치근면은 피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외과적 술식이 보고되고 있다.

본 임상증례에서는 두명의 환자에 대한 상피하결합조직(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SCTG)을 이용하여 다수치아의 치근피개술을 시행한 것을 발표하고자 한다.